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5월)은 가정의 달을 지나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중심을 다시 세워 줍니다.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잠깐 멈추어,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 봅시다. 짧게 읽고, 깊게 붙잡는 기도입니다.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1 가정의 달 감사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30)

주님, 5월의 바람처럼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가족의 사정 앞에서 무겁기도 한 이때에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와 형편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집에 주신 은혜를 셉니다. 서로의 숨결을 지켜 주신 것, 밥상 위의 평범한 한 끼, “다녀왔어”와 “잘 자”가 남아 있는 것까지도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메말라 갈등이 커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선물에 먼저 “감사합니다” 말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며 상처를 남긴 말과 태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을 강요했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사과가 늦지 않게 하시며, 화해가 두려움보다 크도록 도우소서. 아픈 가족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지친 부모의 어깨에 새 힘을, 마음이 흔들리는 배우자에게는 평안을, 홀로 버티는 자녀에게는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의 압박과 건강의 염려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집이 믿음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집 안의 공기가 되고,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며, 손 내미는 이웃에게 따뜻한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보다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바라봅니다. 상처 난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시고, 우리 집의 내일이 믿음으로 더 밝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2 어린이날 다음세대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4)

주님, 아이들의 웃음이 더 크게 들리는 5월에, 다음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와 교회의 아이들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소서. 먼저, 아이들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재능과 성격이 다르고 속도가 달라도, 각 사람을 주님이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비교의 말로 마음을 꺾지 않게 하시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기다려 주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양육의 책임을 핑계로 분노를 정당화했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바쁨을 이유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스마트폰과 성적표로 마음을 재단했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권위를 주시고, 사랑으로 경계를 세우며, 말보다 본으로 복음을 보여 주게 하옵소서. 학교와 학원,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따돌림과 폭력, 왜곡된 정보와 자극적인 문화가 마음을 흔들 때, 아이들의 생각을 지켜 주시고 좋은 친구와 멘토를 붙여 주옵소서. 불안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잠잠한 평안을, 상처가 깊은 아이들에게는 치유의 길을 열어 주시며,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을 환대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아이들의 질문을 소중히 여기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한 사람의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부터 지키겠습니다. 주님, 다음세대는 우리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불안으로 붙잡지 않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3 스승의날 섬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0:26)

주님,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이 함께 숨 쉬는 5월에, 교회와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한 영혼을 품고 길을 안내하는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반복되는 질문을 다시 받아 주는 인내, 한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 주는 시선, 눈에 띄지 않는 준비와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수고한 손길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가르침을 권력처럼 사용하기도 했고, 배우는 자리에서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르치는 이에게는 겸손과 공의를, 배우는 이에게는 순종과 분별을 주옵소서. 서로를 소모시키는 말 대신 세워 주는 말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이 빠르게 변하고, 세대의 언어가 달라 혼란스러울 때에도 말씀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사가 번아웃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함께 짐을 나누는 동역자를 붙여 주시고, 교회가 더 크게 지원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제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배운 것을 자랑으로 쓰지 않고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하시며, 작은 감사의 표현을 미루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한 사람의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한 마디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장의 열쇠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4 일터와 생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주님, 5월의 일정 속에서도 월급날을 기다리며 버티는 마음, 계약서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생계를 주께 맡깁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손을 붙드소서. 성과와 평판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먼저 서게 하옵소서. 주님,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쉽게 조급해집니다. 남을 밀어내고라도 올라가려는 마음, 결과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 주시고, 오늘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게 하소서. 잘못된 길이 달콤하게 보일 때, 양심을 깨우시고 돌이킬 힘을 주옵소서.

구직 중인 이들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면접의 말과 표정, 준비의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낙방의 소식이 정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손님과 거래처를, 직장인에게는 건강한 팀워크를, 노동의 현장에는 안전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무사히’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돈의 사용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더 갖기 위해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비로 눌린 마음을 주님이 풀어 주옵소서. 이번 달의 수입과 지출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놓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과로 살지 않고 약속으로 삽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보다 신실함으로 오늘을 건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5 나라와 이웃의 평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18)

주님, 5월에는 가족 모임과 축제, 휴일의 이동으로 거리와 마음이 붐빕니다. 그 사이에 쉽게 날카로워지는 말과 분열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화목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먼저, 이 땅을 지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하시고, 당연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눈물로 중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를 조롱하고 적으로 규정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같은 사실을 보고도 미움으로 해석하며,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우리의 혀를 붙드셔서 상처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사회적 약자와 외로운 이웃을 기억해 주옵소서. 홀로 사는 어르신, 이주민, 장애인, 병상에 있는 이들, 마음이 지친 청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채워 주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소서. 재난과 사고의 소식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며, 안전을 위한 지혜와 공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의 작은 실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갈등의 자리에서 불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낮아져 섬기게 하시고, 분열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6 봄의 회복과 창조세계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애가 3:22)

주님, 봄이 깊어지는 5월에 우리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새싹이 올라오듯, 주님의 긍휼이 오늘도 새롭다는 사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친 마음을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우울과 불면, 무기력이 떠나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치료와 상담의 길을 열어 주시고, 혼자 견디지 않도록 손을 잡아 줄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들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창조세계를 함부로 대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편리함을 위해 낭비했고, 무관심으로 쓰레기를 남겼습니다. 기후의 변화와 재난의 소식 앞에서 두려움만 키우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실천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작은 절제와 책임 있는 선택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농부와 어업인,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비가 제때 내리고, 바람이 지나치지 않으며, 산과 들과 바다가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소서. 특히 봄철 산불과 각종 사고로부터 마을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복구하는 손길들 위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작은 감사와 순종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내 주변 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5월이 '잘 되는 달'보다 '주님을 더 닮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딜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7 교회와 예배 회복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내가 기뻐하였나이다.” (시편 122:1)

주님, 5월의 분주함 속에서도 교회가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습관이 아니라 갈망으로,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먼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떨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모이고, 멀어졌던 손들이 다시 잡히게 하시며, 예배가 우리의 한 주를 붙드는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미루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태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을 흘뜨리고, 마음은 세상의 계산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가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회의와 일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새가족과 오래된 성도, 상처 입은 이들과 믿음이 자라는 이들이 한 식탁에서 서로를 환대하게 하시며, 작은 모임과 가정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는 정직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소서. 이번 달 한 사람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만져 주시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